

‘휠체어 농구의 서장훈’ 김동현 ‘펄펄’

■2020 도쿄 패럴림픽 리우 은메달 스페인 상대 24득점 14리바운드 활약 터키전은 70-80으로 패배



25일 도쿄 패럴림픽 휠체어농구 대한민국과 스페인의 경기에서 김동현이 슛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휠체어농구의 서장훈’이라고 불리는 김동현(33·제주삼다수)은 ‘강호’ 스페인을 상대로도 부족함 없는 경기를 펼쳤다.

김동현은 25일 일본 도쿄의 무사시노 노모리 종합 스포츠 플라자에서 열린 한국과 스페인의 2020 도쿄 패럴림픽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24득점 14리바운드로 맹활약했다.

비록 한국은 53-65로 패했지만, 김동현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양 팀을 통틀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다. 3점 슛도 2개로 가장 많다.

2016년 리우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스페인과 맞대결에서 한국은 4쿼터 한때 44-46까지 추격하는 등 팽팽히 맞섰는데, 김동현의 활약이 큰 몫을 했다.

덕분에 대표팀은 이날 패배에도 ‘해불 만하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한국 휠체어 농구가 패럴림픽 본선

에 오른 건 2000년 시드니 대회 이후 21년 만으로, 간절히 원하던 무대에 선 대표팀은 4강 진출을 목표로 한다. 경기를 마친 뒤 믹스트존에서 만난 김동현은 “세계 강호 스페인을 만나 좀 힘들었는데, 잘 헤쳐나간 것 같다. 좋은 경기를 펼쳤다”며 “준비 과정이 라고 생각했고, 선수들이 하다 보니 이기려는 마음이 생겼다. 점수 차도

얼마 안 났다. 감히 평가하자면 (오늘 경기는) 90점 정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해불 만하다고 생각했다. 세계의 벽이 너무 높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며 “점수 차가 얼마 안 나니까 (벽을) 허물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선수들도 그런 생각으로 임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체적인 조건에서는 유럽 선수들에

게 밀릴 수 있지만, 기술력에서는 오히려 앞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6살이던 1994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김동현은 한국 휠체어 농구의 ‘에이스’로 자리 잡았다.

파워풀한 몸싸움과 골 밑 장악력, 수비를 붙이고도 주저 없이 쏘는 중거리 슈팅이 그의 강점이다.

이번 대회에서 김동현은 대한민국 휠체어 농구의 강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 쉬지 않고 코트를 누비는 김동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그는 항상 자녀들을 품고 경기에 임한다.

김동현의 왼팔에는 아기 발 모양과 숫자 문신이 있다. 의미를 묻자 “2014년생인 딸이 태어났을 때의 발 모양과 생년월일”이라는 답이 나왔다. 2018년에 태어난 아들은 등번호에 세웠다. 생년월일을 더하면 김동현의 등번호인 ‘40’이 된다.

자녀들이 패럴림픽 출전에 대해 아는지 묻자 김동현은 “잘 모를 거다. 응원엔 엄마가 시키니까 그냥 하는 것 같다”고 웃으며 “코로나19 때문에 가족을 못 만난 지 오래됐다. 너무 보고 싶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한편 한국 휠체어 농구팀은 26일 열린 조별리그 2차전 터키와의 경기에서 70-80으로 패배했다. 연합뉴스

‘만년 강등 후보’ 잔류왕 잇어라

K리그1 4위 인천 유나이티드 후반 상승세… ACL 진출 눈앞

프로축구 K리그1의 ‘만년 강등 후보’ 인천 유나이티드가 사상 첫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진출을 가시권에 뒀다.

인천은 매 시즌 순위표 밑바닥에서 허덕이다가 막판 늘어난 집중력으로 승점을 쌓아 강등권에서 탈출하는 드라마를 써왔다.

그래서 붙은 ‘잔류왕’이라는 별명은 올 시즌 인천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후반기 들어 5승 1무 1패의 상승세를 보이며 다음 시즌 ACL 진출이 가능한 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인천 팬으로서의 믿기 힘든 순위다.

지난 8월 조성환 감독이 부임한 뒤 인천은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것에 더 익숙한 팀으로 변해왔다.

겨울 선수 영입부터 성공적이었다. 조 감독의 뜻에 따라 인천은 센터백 김광석과 델브리지, 미드필더 네게바,

장신 스트라이커 김현 등 ‘즉시전력 감’ 선수들을 영입했다.

38세 노장인 김광석은 전반기 전 경기 풀타임을 소화하며 스리백 수비 라인을 굳건하게 지켰다.

네게바는 2골 3도움으로 효율하게 활약을 펼치고 있고, 만년 유망주 소리를 들던 김현은 자신의 K리그1 한 시즌 최다 골인 4골을 기록 중이다.

조 감독의 전략적 판단도 빛났다. 김현을 적극적으로 기용해 ‘주포’ 무고사의 부담을 줄였다.

무고사는 9월 A매치 기간 몬테네그로 대표팀에 소집돼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 3경기를 치르고 복귀한다.

김현의 골감각이 살아난 터라 A매치 기간 뒤 큰 부담 없이도 무고사의 체력을 안배할 수 있게 됐다.

이대로 인천의 기세가 유지된다면 구단 사상 첫 ACL 진출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변수가 있다. 김광석과 오반석, 강민수, 오재석 등 30대 베테랑 수비진이시즌 끝까지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다. 연합뉴스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미국 흘렸다

‘아메리카 갓 탤런트’ 준결승

세계태권도연맹(WT) 시범단이 미국 방송 NBC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갓 탤런트(America’s Got Talent)’에서 현지 시청자들의 압도적 투표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세계태권도연맹에 따르면 연맹 시범단은 25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아카데미 시상식 장소인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의 돌비 극장에서 열린 준결승전에서 12개 팀의 출연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랐다.

연맹 시범단은 2020년 1월 ‘이탈리아 갓 탤런트’에 출연해 골든 버저를 받으며 결선에 진출했고, 해당 영상을 본 아메리카 갓 탤런트 측의 거듭된 출연 요청으로 올해 봄 오디션에 참가했다.

시범단은 사회자로부터 골든 버저를 획득하고 바로 준결승에 직행했다. 이미 지난 출연 영상으로 유명해진 연맹 시범단을 향해 관객들의 기립 박수가 쏟아졌다.

시범단은 급변하는 문명 속에 사는 현대인들이 태권도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세계로 더 나은 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는 주제로 3분여 동안 공연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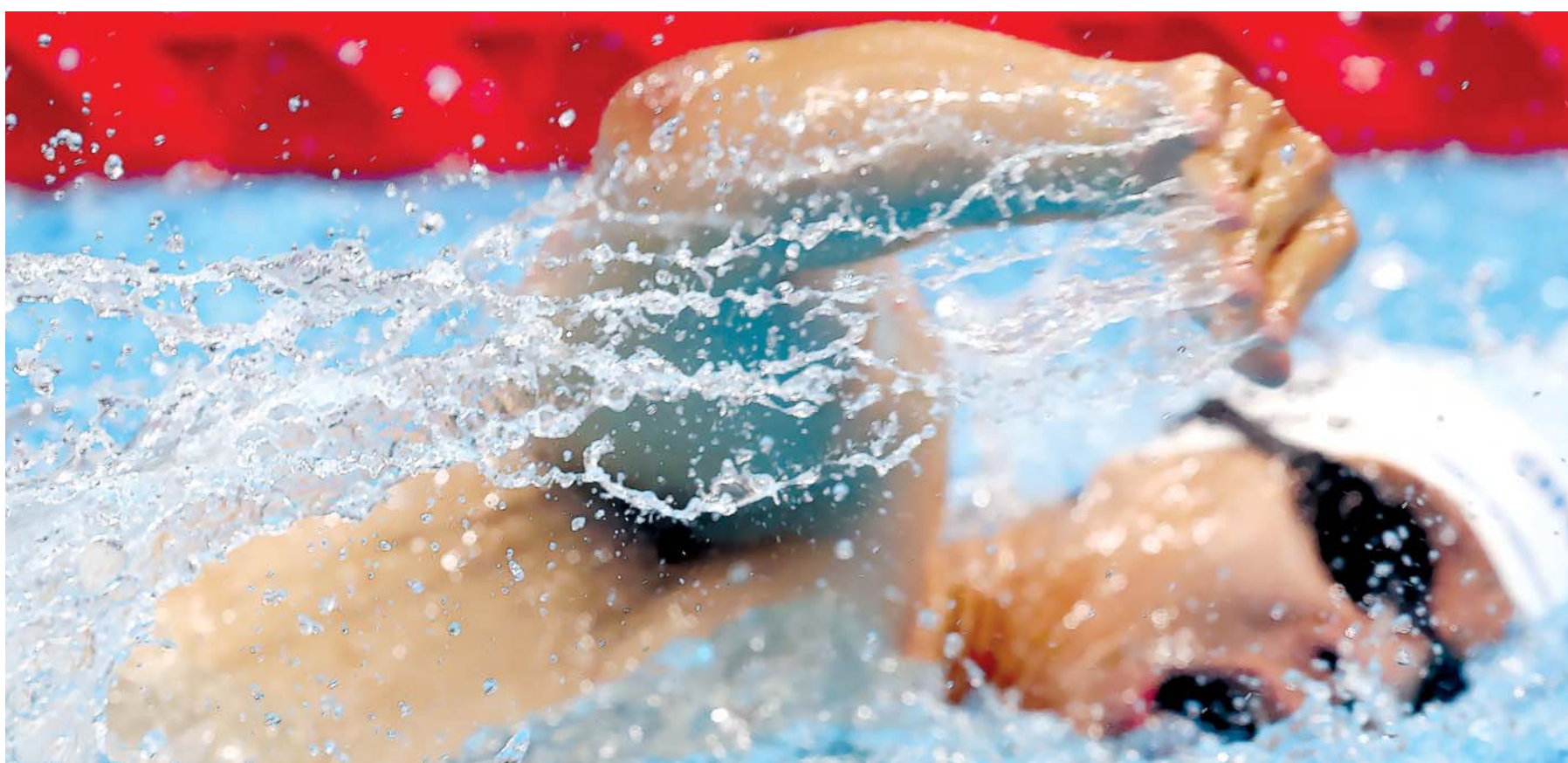
심사위원인 사이먼 코웰, 소피아 베르가라, 하이디 클름, 하위 맨틀은 공연이 끝나자 관객과 함께 다시 기립박수를 보내고 “오늘 공연 중 최고였다”고 극찬했다.

“시범단이 만약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을 하게 된다면 티켓을 사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라며 “마블 영화의 주인공들은 컴퓨터 그래픽의 힘에 의존하는데 시범단은 실제”라며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투표 결과 발표는 경연 다음날인 26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시범단은 투표 순위에서 자동으로 준결승에 진출하는 5위 안에 당당히 들었다. 시범단의 준결승 진출에 모든 심사위원은 당연한 결과라며 박수를 보냈다.

준결승은 9월 1일 생방송으로 열리며 결승전은 9월 15일 개최된다. 우승팀에는 상금 100만 달러(약 11억7000만 원)가 주어진다.

아메리카 갓 탤런트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초대형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현재 16번째 시즌이 방영되고 있다.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들과 달리 정해진 주제가 없어 다양한 참가자가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보여주는 쇼 프로그램이다. 연합뉴스



날개가 달린 것처럼 26일 오후 일본 도쿄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100m(S4) 결선에서 조기성이 흰차게 물살을 거르고 있다. 2016년 리우 패럴림픽에서 자유형 50m·100m·200m(S4)를 제패하며 한국 패럴림픽 수영 최초 3관왕에 오른 조기성은 1분28초46의 기록으로 5위를 기록하며 한국 패럴림픽 수영 선수 최초로 100m 2연패에 도전했으나, 아쉽게 메달을 놓쳤다. 조기성은 자유형 200m와 50m, 배영 50m(이상 S4)에서 메달 도전을 이어간다. 연합뉴스

석재부

- 불상전문제작 (제주중문에서)
- 비석→ 직접가공 및 설치
- 석물→ 일절완비
- 돌하루방, 물허벅, 해녀상 일절가공
- 제주 전시장 (중문고등학교앞)
- 납골묘, 평장묘 전문

장례부

- 1) 1급 장례지도사 5명 보유
- 2) 장의차량 리무진 및 장의차 7대 보유
- 3) 제주의료원 협력업체
- 4) 서귀포의료원 협력업체
- 5) 24시간 출동 대기
- 6) 장례용품, 도우미
- 7) 매장 및 화장, 이장

대표 박복현 010-3698-0402, 010-3693-4333 E-mail. qhrgus4333@hanmail.net

중문 석재 장의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834-5 Tel. 064-738-4333 Fax. 064-738-4336